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강 인 규 나주시장

"'7대 구상' 비전 선포…호남의 중심도시 실현할 것"

"당장 눈 앞의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욱 단단한 각오로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 건설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주요 성과와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을 12만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선포, 한전공대 유치,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1 마무리 등을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 대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LG화학 나주공장 이전안 등 발표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성과도

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도 성과로 들었다.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 완료,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급 확대,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전국 1위 등 역사와 문화, 먹거리 분야 전반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전남 8개 시·군이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쳤던 '남도의병 역사공원' 사업을 거머쥐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더욱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민선 7기 후반기 핵심 비전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구상은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글로벌 슬로시티 인증,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나주~광주 평동역을 연계한 순환형 광역교통망 확대, 금성산 군부대 이전·매설지뢰 완전 제거,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방안 마련, 마한사 복원·역사문화도시 지정, 세계 에너지엑스포 유치 등이다.

7대 선도 프로젝트는 나주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현안들을 정책과제로 발굴한 중·장기 시책 사업으로 짜여 있다.

강 시장은 특히 "1981년 하굿둑 건설로 가로막힌 영산강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갈 것"이라면서 "영산강 생태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문제는 시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환경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새로운 시도는 늘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나주가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2만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담양군, 아열대채소 '공심채' 집중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 기술·요리 활용 연구

담양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의 재배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심채는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민 채소다. 동남아와 중국 남부에 걸쳐 넓게 재배되는 공심채는 고온의 기후와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 장마철이나 여름철 혹서기에도 생육이 왕성하며 비타민 A와 철분이 매우 많은 건강 채소이며,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특히 음식으로만 쓰이지 않고 자연에 무해한 친환경 빨대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담양군은 공심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를 진행하고, 전문요리점 벤치마킹·딸기 휴경기 재배 적응성 시험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우리음식연구회와 연계한 다양한 공심채 요리의 개발과 시식 평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틈새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담양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심채는 철분과 무기질이 풍부한 아열대 채소"라며 "로컬푸드 매장 등 판매처 확보와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 담양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아열대 채소 '공심채'.

기자 노트

공립 대안학교 교명 '송강' 논란

박 정 욱
제2사회부 차장

전남교육청이 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를 담양에 설립한다. 대안교육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청은 최근 공모를 통해 교명을 '송강고등학교'로 확정했다. 교명에 대해 우리나라 수종을 대표하는 소나무처럼 학생들이 곧고 푸르기를 바란다는 뜻의 '송(松)'과 강물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기를 희망하는 '강(江)'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강'은 학교 주변에 흐르는 증암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교명 풀이가 참 좋다. 교육청이 제시한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도 잘 담아냈다.

그러나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교명인 '송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강'하면 무엇이 떠오른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주인공 '송강 정철'일 게다. 실제 정철은 증암천의 다른 이름인 '송강'을 바라보며, 이를 호로 삼았다.

송강은 조선 중기 당대 최고 엘리트였다. 송강은 젊은 시절 담양에서 공부했다. 스승은 면앙정 송순, 고봉 기대승, 하서 김인후 등 호남의 명사들이었다. 27세때 고시(문과 별시)에 수석 합격해 율곡 이이와 함께 호당(국비 장학생)에 뽑히는 등 요직을 거쳐 우의정·좌의정에 올랐다.

당쟁에 따른 풍파는 있었을지언정 배움의 길에서만큼 그는 '꽃길'만 걸었다. '송강고'를 다닐 학생들의 환경과 처지와는 다름이다.

물론 논란은 여기에 있지 않다. 송강이 당대의 호남 지식인 1000명을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정치인이라는 데 있다.

'정여립의 난'이 불러온 기축옥사, 조선의 정치 풍토를 갈라버린 사건이다. 논리로 싸우던 당쟁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으로 바꿔버린 사건이다.

기축옥사는 서인이었던 정여립이 하룻밤 사이에 여당인 동인으로 당적을 옮기고, 그가 반역을 꿈꾸다 발각되면서 벌어졌다. 역적 토벌을 빌미로 이후 3년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동인 선비가 학살당하고 유배당한 참극이다. 당시 수사반장(위관)은 서인의 당수 '송강 정철'이었다.

일가족이 몰살당한 동인의 당수 '이발'의 후손은 부엌칼로 고기를 다질 때면 '정철정철정철'하며 도마를 두드린다고 한다.

그는 서인의 당수로, 당파 이익에 골몰했다. 전남교육 철학인 '인간·미래·민주'는 없었다. 그에 의해 호남 지식인 1000명이 희생되면서 조선 후기 중앙정계에서 호남은 사라지고 말았다.

송강의 사상과 업적은 뒤로 하고, 배움의 길·인간 관계를 놓고 본다면 전남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대안학교의 '교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jwpark@kwangju.co.kr

새얼굴

"군민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만드는데 최선"

김재승 함평소방서장

"함평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재승 함평소방서장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함평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여수소방서 구조대장, 목포소방서 방호팀장, 소방본부 감찰조정관, 영암소방서 방호팀장,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군 전화 친절도 '우수'

강진군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와 군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대·체감만족도 등 4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전체 직원 706명 중 상반기에 실시했던 직원을 제외한 346명(49%)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화친절도는 평점 88.89점으로 2018년 88.36점 보다 0.5점 향상됐으며, 맞이단계(94.12점) 점수가 가장 높고, 마무리단계가 77.79점으로 가장 낮음으로 나타났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